

##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1-9, 마가복음 15:16-20

정윤돈 목사님

### 요약

서론 : 종려주일의 의미,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행적

1.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내용 :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

2.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근본적 해결

결론 :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

### 서론 :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분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도 한다.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부활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1)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주일이라는 의미를 알고 고난주일의 의미를 잘 아는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잘 모른다. 그래서 먼저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된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옷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들인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어쨌든,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때 무리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알아야 할 부분과 발견한 부분이 있다.

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같이 입성한 것은 로마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서 않고 개신장군처럼 들어갔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이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은 왕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다. 로마 역사에서 십자가형을 내린 기록은 36번 밖에 안 된다. 많지 않다. 심지어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실사하지 말라고 법령으로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십자가형은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반역 행위나 강도행위나 극악한 범죄 행위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형으로 죽일 만한 타당한 죄목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대가 많았을 것이다. 그 때가 유월절이었다. 그 때 죄 지은 사람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에) 예수를 죽이자,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해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어떤 신학자는 “말을 타고 개신장군처럼 들어오면 멋있을 텐데, 왕인데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아장아장 들어오는데 무슨 개신장군인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라고 했다. 그런데 9:9을 보면,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지 예언을 하고 있었다.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오셨다. 왕으로 입성하는데도, 나의 왕국은 여기가 아니라 하시는데. 주님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② 또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500년 이상 왕이 없었다. 주권을 잃었다. 주권을 찾는 듯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빼앗겼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스라가 정리한 역대상 하를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그래서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이 유월절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드디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가보다. 그래서 친군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모양이다.’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기도하시고, 바리새인과 변론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자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고개를 돌렸다.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선다. 요한 사도가 어업을 해서 돈이 많고, 대제사장과 친해서 뜰까지 왔다갔다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었을 만큼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은 기회주의자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내려오면 나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

을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나중에 요한삼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개를 돌린 상황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는가? 여자들이 부활을 믿고 쫓아갔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 그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그런 상황이었다.

③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마치 왕처럼, 개신장군처럼 들어가셨다. 세상 왕은 전부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참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진실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는 것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행적을 말씀드리겠다.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다. 화요일에는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셨다. 수요일은 휴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예비하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면 묶고 줄을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줄 것이다.” 나귀새끼도 비싸다. ‘정윤돈 목사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겠는가? (웃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참된 주인, 참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행동인 것 같다. “성전세 반 세겔을 내라고 하는데, 이 세겔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왕의 아들이 무슨 세겔을 내겠느냐?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기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으니, 반은 나를 위하여, 반은 너를 위하여 성전세로 주어야.” 그 간단한 사건(마17:24-27)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나는 전지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도 마찬가지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 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 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라.” 그래서 넓은 다락을 얻게 되었다(막14:12-16). 나중에 마가다락방으로 변한 그 현장이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도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예언하지 않고 행한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으며,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된다. 어떤 사람은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온종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계산하면 거의 40시간이 된다.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함께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그 전에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등동물일수록 고난의 수준이 낮다. 지렁이는 뱀으면 꼬를뒀다. 지렁이는 ‘나무 아파요. 뱀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수 없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등동물일수록 고통을 깊이 느낀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약간 하등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도 모른다. (웃음) 시골에 사는데 갑자기 집에 산토끼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전에 집에 집토끼를 키워서 토끼를 잡아먹은 적이 있었다. 그 전에는 귀여웠는데, 먹고 보니까 맛있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천연 산토끼가 제 발로 집에 들어왔다. 고기로 보였다. ‘저걸 잡아서 바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내 키만큼 뛰었다. 그러나 토끼를 잡아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끼 목을 졸랐다. 토끼가 여성의 목소리로 ‘깹!’ 소리를 지른 것이다. 토끼 목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사망했다. 그런데 그 토끼 목소리가 지금도 트라우마로 들리는 것 같다. ‘토끼도 고통을 아는구나’ 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고민을 직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줘야 하는데, 어디 다른 데 말할 수도 없다. 만약에 여러분의 속생각을 다 안다면 아마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고난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아니하신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시를 당했을 때, 뺨을 맞았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주일학교를 갔더니 유치부 꼬마가 나를 반갑게 맞이한다고 쳐다보면서 ‘야!’ 했다. 자기는 반갑지만 나는 반갑지 않았다. ‘전도사님한테 야! 라니. 언젠가는 한 대 때려줘야겠다.’ (웃음)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크세 세 가지로 나누겠다.

(1) 첫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다.

①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이다. 마27:45에, “제 욕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것이다. 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 속에서 정윤돈 목사가 행했던 더러운 죄가 보인 것이다. 김정로님, 이장로님, 최창로님, 박권삼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

시를 당한 적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외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28:46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에게 버림 받은 영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다.

②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지난 주간에 누명을 써서 마음을 아파하는 두 사람을 TV를 통해서 봤다. 한 분은 태진아 씨고 한 분은 설운도 씨다. 태진아 씨가 도박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리를 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설운도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분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고 TV에서 이야기하더라. 누명을 썼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고후5:21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다 덮어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시켜주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③ 또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셨다. 너무나도 아픈 영적 고통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다(막15:19). 전도하다가 침 뱄음을 당하신 적 있는가? 뺨을 맞았던 적 있는가? 나는 이단들에게 뺨을 맞았다. (웃음) 신천지는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간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 아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는 곳마다 크게 지었는데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빼먹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안식일을 몇 번까지 빼먹으면 구원 받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을 못 한다. 그렇게 구원관을 잘못알고 있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따라간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신천지에 가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듣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되든지 교인들을 꼬셔서 ‘14만 4천명을 채워서 우리가 영생을 얻자’ 하고 가르치는데, 그 교육을 받아 들인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최고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임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① 배신감, 수치심, 오해,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을 했다. 상담을 했는데 믿었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라.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방 받았다. (웃음)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두 종류의 회사가 주식이 올라갔다고 한다. 아웃도어와 막걸리 회사가 올라갔다고 한다. 현장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소수였지만, 등산하는 목적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내려와서 막걸리를 한잔 하시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네피림 시대이다. 사랑해야 하는데, 네피림 시대니까 마음과 영혼이 다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당하는 일이 많다. 돈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어찌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아닌가? 눅22:34에, “이르시되, ‘메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다.

② 또 한 가지는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광야생활을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크게 소리치르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지켜준 그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하지만, 그들만 그렇겠는가. 우리도 매일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구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공부하고 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같이 아픈지 답답하셨겠는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방법은 오직 예수다. 예수 뿐이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 드리는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3)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도 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 무겁고 힘들니까 가시면서 계속 쓰러지셨다. 다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할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금요일에 강요한 목사가님 설명하시던데,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를 실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늘로 한번 손을 찔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다. 요19:30,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 아픔, 갈등,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우리 가정의 염려, 자

녀의 염려, 사업의 염려, 교회의 염려가 우리의 염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야지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① 인생의 슬픔을 담당하는 고난이다. 정말 슬플 때가 있지 않은가. 정말 눈물이 날 때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받아 주셨다.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②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③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고난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로운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될 것이다. 정말로 한 사람만 있어도 전쟁과 재앙이 그치고, 이 민족과 나라가 행복한 민족과 나라로 축복을 받고 지속될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④ 우리를 치료해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렘33:6에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닦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당한 상처, 인간관계에서 당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될 수 없다. 오히려 악화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이다. 아물 줄을 모른다. 줄어들 줄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질병과 아픔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출15:26,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 다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다.

①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원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② 창세기 6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창세기 6장과 같이 인간들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사랑의 열매, 인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③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창11장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닌가. 이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 이후에, 행1:3,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사역으로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아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효과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2) 둘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해야 되겠다. 십자가는 로마시대에는 형틀이었다.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는 분들은 형틀을 매달고 다니는 분이다. 과거에는 형틀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구원의 길로 바뀌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재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형틀에서 용서로 바뀌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에서 인간의 사랑으로 바뀌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 절대적인 순종을 상징하고 있다. 어제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했다. 다시 의미를 적어보니까 100가지가 넘는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3) 세 번째로 성심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에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며,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가족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대신 벌을 받으시기 바란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민족, 학교가 잘못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 회복시키는 예수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귀한 응답의 메시지를 지혜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만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